

서울, AI시대 ‘대체불가 기술’ 집중 도배·설비·공조까지 현장인력 강화

기술교육원, 3개 캠퍼스 통합 운영
상반기 77개 학과서 2004명 모집
AI·공조·설비 현장수요 맞춤 교육
일경험·단기과정 도입 재교육 강화
교육비 전액 무료, 취·창업 연계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대체되지 않는 기술’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기술교육원 훈련생 2004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 동부, 북부 등 3개의 기술교육원 캠퍼스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진로 목적에 맞는 직업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상반기에 총 77개 학과에서 2004명을 모집한다. ▲중장년 특화과정 18개 학과 466명 ▲기업협력형 과정 6개 학과 165명 ▲전문기술과정 36개 학과 924명 ▲국가기술자격 과정 5개 학과 134명 ▲AI·하이테크 융합과정 12개 학과 315명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산업 현장의 변화와 직무 수요를 반영해 ▲지능형공조냉동 ▲AI활용게임개발 ▲설비보전·시설관리 ▲옷칠 등 4개 학과를 신설한다.

동부캠퍼스 지능형공조냉동은 자동화되는 건물 공조, 냉동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예측제어와 데이터분석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북부캠퍼스 AI활용게임개발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추세를 반영해 웹 기반 게임개발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북부캠퍼스 설비보전·시설관리는 산업현장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기계·전기시설 등 설비 유지보수 분야의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훈련생이 특수용접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북부캠퍼스 옷칠은 전통 공예기술인 옷칠 교육을 통해 문화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을 육성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일경험 과정은 8~16시간의 초단기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단열필름 시공, 전기제어 실습, 자동차 정비 체험 등 실제 현장 중심의 직무 체험으로 구성되며, 총 13개 학과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정식 직업 훈련에 앞서 훈련생이 직무 적성과 현장 업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상반기에는 교육과정 구성을 거쳐 5~6월 모집, 7월부터 개강할 예정이며, 이후 정규·단기과정으로 연계되는 단계형 직업훈련 모델로 운영된다.

또 기술 환경 변화로 재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 직업훈련 정책에 단계적 역량 개발 방식을 도입했다. 2026년 상반기부터 350시간 이하 단기과정 수강자에 한해 3년간 최대 2회 재입학을 허용해, 다양한 기술과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단계적 역량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집 인원의 30%는 사회적 배려계층

을 우선 선발한다. 우선선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5·18유공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이다.

모든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국가기술자격 시험 기능검정료 지원, 식사 제공(1일 5교시 이상 교육 진행 시), 수료 후 취·창업 연계 컨설팅도 함께 제공된다.

지원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각 캠퍼스에 직접 방문하거나 기술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각 캠퍼스 또는 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최근 도배·타일·배관공 등 현장 기술직이 AI로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으로 인식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청년의견수렴과 현장 관계자 논의를 거쳐 하반기 이후 청년층 특화 과정 운영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박형준 부산시장, 북극권 협력 강화 나서

미국 3개 도시 순방 일정 소화
북극항로 연계 물류 협력 논의

박형준 부산시장이 4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순방에 나선다.

박 시장은 4박 7일 일정으로 앵커리지, 노, 라스베이거스 등 3개 도시를 방문한다. 북극권 협력 강화와 첨단 기술 산업 동향 파악이 이번 순방의 목적이다.

먼저 현지 시각으로 5일 앵커리지시청에서 부산시-앵커리지시 우호협력 도시 협정 체결식이 열린다. 양 도시는 항만·물류, 관광, 에너지 자원,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박 시장은 알래스카주지사를 만나 경제·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앵커리지 항만도 방문해 북극항로 연계 물류 협력 가능성을 살핀다.

6일에는 알래스카주 노(Nome) 시를 찾는다. 노 시장과 항만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북극항로 거점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노 심해항 개발 예정지를 직



박형준 부산시장.

접 방문해 베링해협 인근 항만 현황과 개발 동향도 점검한다.

7일부터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CES 2026’을 찾는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서 박 시장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부산의 첨단 전략 산업과 접목 방안을 모색한다.

통합부산관을 방문해 참가 기업 28개를 격려하고 글로벌 바이어·투자자 네트워크 현황을 점검한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부회장과 만나 부산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부산 기업은 올해 CES에서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해 총 13개 혁신상을 받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기도, 평생학습 ‘지식앱’ 최우수 평가

행안부 평가서 90점 이상 기록
통합 학습관리시스템 확대 운영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앱이 행정안전부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에서 2025년 최우수 공공앱으로 선정됐다.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는 2017년부터 매년 공공앱의 사용률과 관리 품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지식(GSEEK) 앱은 2023~2024년 다운로드 수, 업데이트,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90점 이상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올해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607개 앱 중 5개가 최우수 앱으로 선정됐으며, 지자체 앱 가운데서는 유일하다.

경기도 지식(GSEEK) 앱은 475만여 명이 이용하는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과 누리집을 통해 13개 분야 1,

900여 개 온라인 강좌와 실시간 화상강좌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 대상 오프라인 학습 정보도 안내한다. 이용자 만족도는 iOS 4.7점, 안드로이드 4.3점을 기록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회원가입 시 학습 이력 관리, 수료증 발급, 맞춤 추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하나의 아이디어로 경기도 지식과 시군 평생학습 교육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25년 기준 13개 시군에 보급했고, 2026년에는 16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평생학습 강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울산, 中企·소상공인 3000억 금융 지원

車업중·AI기업 집중 배정
경영안정자금 조기 집행

울산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 3000억원 규모의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다양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반기 중 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글로벌 무역 리스크 및 소비심리 위축 상황에 대비한 금융안정망 구축에 나선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돼 경영·기술 혁신형 육성자금

및 일반 중소기업 시설자금을 축소하는 대신, 미국발 관세로 타격이 큰 자동차업종에 자금을 확대 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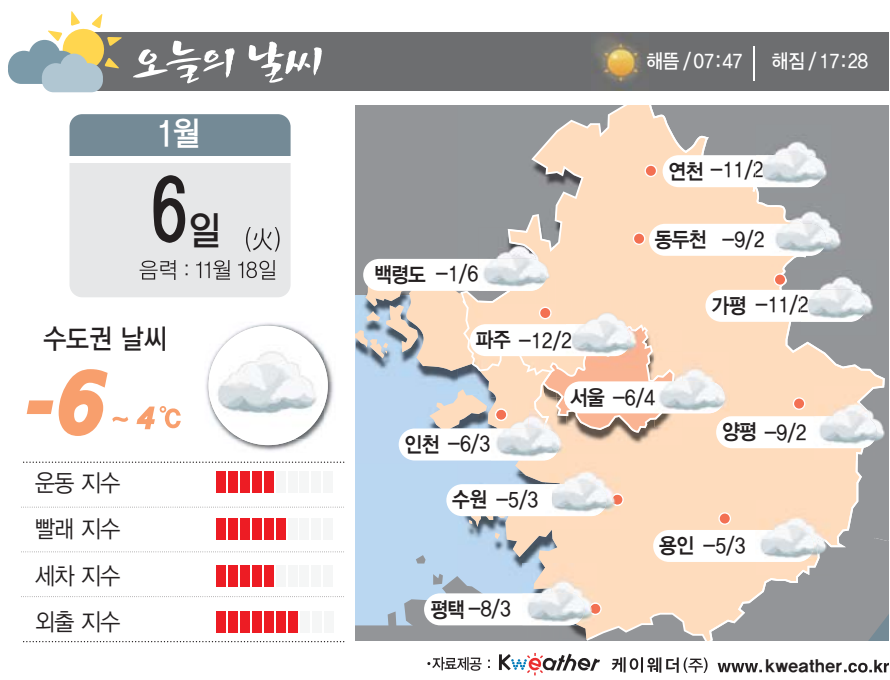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5억원 이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은 2~4년, 시설자금은 5년 상환 조건으로 금융기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협약 금융 기관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수출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등 13개소다. 2026년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은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울산경제일자리

진흥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계획에는 AI 대전환 추진을 위한 AI인프라 육성자금이 신설됐다. 인프라 구축, AI 접목 생산 설비 투자,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 등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2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AI인프라 육성자금은 AI 사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6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상환 기간은 경영안정자금 2~4년, 이차보전 2.5%로 강화됐다. AI인프라 육성자금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트럼프 “베네수 군사작전, 시 주석과의 관계에 영향 없을 것”
▲트럼프 “베네수엘라 석유 재생산” 예고했지만 中 반발-인프라 낙후 난제 /사진 뉴시스

▲美 FDA, 예산·인력 감축에 신약 허가↓… 작년 46개 승인
▲美 ‘포스트 마두로’ 구상… 직접 통치보다 압박, 민주주의보다 석유이권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예멘내전 대화 중재 준비돼 있어”
▲교황 “베네수 주권 보호돼야… 국민 안녕이 최우선”